

간호대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 건강 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

김윤정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study on Cancer-related knowledge, health beliefs,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Yun Jeong Kim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Pai 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 건강 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195명이며, 자료수집은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I 은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였으며($F=2.543$, $p=.012$), 학년($\beta=.079$, $p=.011$)이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II의 회귀모형 적합도($F=14.924$, $p<.005$)이며, 연령($\beta=.079$, $p=.011$), 건강신념($\beta=.078$, $p=.001$)이 암 예방 건강증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에게 암 예방 관련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예방, 암, 태도, 지식, 융합

Abstract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bout cancer, health belief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95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in August 5 to August 29, 2020.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cancer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 nursing students. In Model I, the fit of the regression model was significant ($F=2.543$, $p=.012$), and grade ($\beta=.079$, $p=.011$) was found to be a factor influencing the progress of cancer prevention health. Regression model fit of Model II ($F=14.924$, $p<.005$), age ($\beta=.079$, $p=.011$), and health beliefs ($\beta=.078$, $p=.001$) were related to cancer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appeared to have an impac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nursing students to develop and evaluate cancer prevention-related convergence programs.

Key Words : Prevention, Cancer, Attitude, Knowledge,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Yun Jeong Kim(yunkim@pcu.ac.kr)

1. 서론

1.1 서론

2021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1위가 악성신생물(암)이며, 그 뒤로 2순위는 심장질환, 폐렴이 3순위, 그리고 4순위는 뇌혈관질환, 마지막 5순위는 자살 순으로 나타났다[1]. 인간 생명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암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이다. 한국인의 사망원인인 1위로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암은 발병 후 질병과 치료에 따른 어려움, 전이와 재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치료비 부담 등 대상자가 겪게 되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발병 후 암치료보다 발병 전 암 발생요인 및 위험인자와 조기 발견 방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갖게 하여 암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2]. 그리고 습득된 암에 대한 지식은 건강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과 암 검진과 조기발견 행위와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서민경[4]의 연구에서 성인 대상으로 암에 대한 지식이 높거나 많을수록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 실천을 잘 실천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 실천 행위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간호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미래의 간호사가 되어 대상자의 건강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암을 유발하는 음주, 흡연과 같은 주요한 건강관련 습관은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대학생 시기에 영향을 준다. 특히, 대학생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습관과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불규칙한 식습관과 흡연과 음주 등의 부정적인 생활습관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생활습관 관련 질환에 관심이 낮으며, 이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지 않아 잘못된 건강관련 습관을 형성하기 쉽다.

특히 의료인이 될 간호학과 학생들은 본인의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자를 간호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의 교육과정에서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등은 필수교과목으로 되어있지만, 암환자간호는 따로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 선택교과목으로 되어있는 학교가 전부이다.

건강신념은 어떤 특정 질환이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 그 질환이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향,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을 수행하는 경우 그 예방책의 효과와 수행에 따르는 장애 등에 관하여 지각하는 내용을 의미한다[5].

박은희 외 [6]의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암 관련 건강신념에 포함된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 그리고 유익성 등은 많은 암의 예방적 건강행위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과 예방을 취하여 건강한 상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증진행위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의료인이 될 간호학과 학생들은 건강행위 교육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1.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고,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에 관한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및 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방법

연구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D 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본인 스스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총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수 8개 정도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최소 표본크기가 18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200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는 19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본 연구에 사용된 암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수현 외 연구에서[7] 사용한 암 종류별 암 발생요인, 고위험 대상자, 조기증상, 진단 및 치료방법, 조기검진, 유전 및 기타 내용의 6개 영역,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혈액종양병동 간호사 1인, 간호학과 교수 2명의 자문과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점수는 암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체크하여 점수범위는 36점이다. 계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암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익지 등[8]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다.

2.3.2 암에 대한 건강신념

암에 대한 건강신념 조사도구는 문정순[9]이 개발한 건강신념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지유익성, 그리고 장애성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김영임 등[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0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4이었다.

2.3.3 암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는 김익지 등[8]의 도구를 보건복지부가 개정하여 제시한 암 예방 실천지침서에서 '국민 암 예방 수칙' 부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이 및 건강생활과 운동 등에 관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김익지 등[8]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다.

2.4 연구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문내용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주제에 심도 깊은 간호학과 교수 3인에게 질문을 얻고 내용에 대한 구성과 프로그램 증재와 전략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암에 대한 지식, 건강 신념, 그리고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 관련 지식, 건강신념 및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 비교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3) 간호대학생들의 암에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 및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이 64명, 여학생이 131명으로 여학생이 67.9%를 차지하였다

20세 이하는 15명, 20세에서 25세는 163명으로 전체 대상자중 83.6%를 차지하였으며, 25세 이상은 17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은 64명(24.6%), 여학생은 147명(75.4%)로 여학생이 많았다. 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 53명(27.2%), 4학년 52명(26.7%), 2학년 48명(24.6%), 1학년 42명(21.5%)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t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20	15(7.7)
	20-25	163(83.6)
	25<	17(8.7)
Gender	Female	147(75.4)
	Male	64(24.6)
Grade	1	42(21.5)
	2	48(24.6)
	3	53(27.2)
	4	52(26.7)
Religion	Yes	122(62.6)
	No	73(37.4)
Self assessment of health	Good	64(31.3)
	Moderate	95(48.7)
	Bad	39(20.0)

3.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암에 관한 지식,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 관련 지식정도
 는 연령($t=-3.76, p<.001$), 성별($t=-1.09, p=.287$),
 학년($F=4.01, p=.002$), 종교($t=1.72, p=.085$), 자가건강
 상태($t=-0.85, p=.395$)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
 강신념은 연령($t=-3.54, p<.001$), 학년($t=3.97, p<.001$)
 로 따라 연령과 학년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따르면 건강
 증진행위는 자가건강상태($t=5.97, p<.001$)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Knowledge on Cancer, Health Belie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5)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Health Belief			Health Promoting Behaviors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Age	>20	30.07±1.82	-3.76 (.001)		4.05±2.21	-3.54 (.001)		18.72±2.71	1.53(.121)
	20-25	32.56±1.63			4.18±1.99			19.03±2.59	
	25<	31.93±2.01			4.12±2.23			19.56±2.41	
Gender	Female	33.74±1.75	-1.09 (.287)		4.23±2.56	-0.40 (.537)		19.97±3.18	2.23(.42)
	Male	30.60±1.50			4.01±2.10			17.86±2.45	
Grade	1 ^a	28.01±2.04	4.01 (0.02)	a(b), a(c)	3.98±2.58	3.97 (.001)	a(b), a(c)	16.61±2.64	0.83(.406)
	2 ^b	33.01±4.55			4.00±3.04			17.68±2.88	
	3 ^c	31.12±1.76			4.16±2.19			19.01±2.44	
	4 ^d	29.95±1.66			4.18±3.43			19.23±2.46	
Religion	Yes	30.79±1.75	1.72 (.085)		4.12±2.39	2.02 (.038)		18.60±2.45	0.68(.459)
	No	32.03±1.76			3.98±3.30			18.03±2.89	
Self Assessment of Health	Good	30.54±1.97	-0.85 (.395)		4.20±2.72	-1.21 (.213)		20.32±2.48	5.97(.001)
	Moderate	32.50±1.76			4.25±2.99			19.10±2.66	
	Bad	34.11±1.50			4.08±2.74			19.88±2.59	

3.3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

본 연구에서 암에 대한 지식은 평균 27.23±2.96,
 건강신념은 평균 34.18±2.24으로, 암에 대한 건강증진
 행위는 평균 72.56±8.93으로 나타남을 Table 3에서
 알 수 있었다.

3.4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는 Table 4과 같다.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와 암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지식이 많을수록 암 예방 건강
 증진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7, p<.001$).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신념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건강신념이 좋을수록 암 예방 건강증진
 행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8, p<.001$).

Table 3. Cancer Knowledge, Health belief,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95)

variables	M±SD
Knowledge(36)	27.23±2.96
Health belief(50)	34.18±2.24
Health promoting behaviors(105)	72.56±8.93

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95)

variables	Knowledge	Health belief
	r(p)	r(p)
Knowledge	1	
Health belief	0.109(.048)	1
Health promoting behaviors	0.207(.001)	0.288(.001)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of Variable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Variables	model I			model II		
	β	t	(p)	β	t	(p)
Age	0.043	1.8475	(.071)	0.079	2.012	(.011)
Gender	-0.045	-0.859	(.347)	-0.061	-1.325	(.172)
Grade	0.079	2.332	(.011)	0.069	1.824	(.053)
Religion	-0.049	-1.122	(.275)	-0.029	-0.519	(.526)
Self Assessment of Health	-0.037	-0.948	(.213)	-0.027	-0.628	(.437)
Knowledge				0.021	2.657	(.005)
Health Belief				0.078	4.294	(.001)
R2		0.51			.151	
Adj R2		0.33			.117	
F(p)		2.543(.012)			14.924(.005)	

3.5 간호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델 I은 통제 변수들이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2.543$, $p=.012$). 학년($\beta=.079$, $p=.011$)이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나타난 모델II의 회귀모형 적합도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F=14.924$, $p<.005$), 연령($\beta=.079$, $p=.011$), 건강신념($\beta=.078$, $p=.001$)이 암 예방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암 관련 지식과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 예방교육 경험, 지각하는 건강상태, 운동에 따라 유의한 결과 차이를 보여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11]. 김계숙[12] 연구결과 건강상태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암에 대한 건강행위 점수가 높은 결과는, 본연구의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암 관련 예방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암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때는 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대상자 스스로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적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하겠다.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및 건강증진행위 관계를 살펴

보면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이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신념과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는 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건강신념이 좋을수록 암에 대한 건강증진행위를 잘 실천하였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13-16]에서 암에 대한 태도가 좋거나 긍정적인 때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증진행위도 잘 실행하는 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를 토대로 반복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일반화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일옥 외[17]의 연구에서 성인 대상으로 암에 대한 지식이 높거나 많을수록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 실천이나 실천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 연구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율이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았다[18,19].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 실천율이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양야기[20]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대학생의 암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암에 대한 태도, 운동, 대상자의 나이, 암을 걱정하는 것은 43.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에 대한 태도가 암 예방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의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이 암 예방 건강증진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암 예방 관련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 보았으며, 지식과 건강신념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

를 파악하여 암 예방 관련 기초자료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암 관련 지식과 건강 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암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이 암 예방 건강증진 행위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건강행위에 효과적인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활용방안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를 일 지역 간호대학생에게만 적용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런 제한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해 본다.

REFERENCES

- [1]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1). <http://kostat.ti.kci.go.kr/wsearch/search.jsp>
- [2] J. H. Lee, Y. D. Lee & J. K. Kim. (2019). Comparison of perception on the treatment of cancer pain-focus on nurses and medica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1), 445-451. DOI : 10.15207/JKCS.2019.10.11.445
- [3] S. M. Kim, S. O. Kim. (2019). Comparison of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toward cancer, attitud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2), 655-664. DOI : 10.35873/ajmahs.2019.9.2.064
- [4] M. K. Seo, (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actice of health acts to prevent cancers*. Jeonbuk University in thesis. DOI : org/10.1177/21582440211004163
- [5] I. Y. Ku, K. H. Ka, S. J. Moon, & E. H. Kim. (2017). A research on oral health belief, knowledge, attitude, and the behavior of teachers in rural community children centers.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6), 1159-1169. DOI : 10.26840/JKI.30.2.95
- [6] E. H. Park, Y. H. Cho & W. J. Kim (2009). Influence of health beliefs on preventive health behaviors for cancer among middle-aged women. *Public health and Welfare*, 17(42), 26-32. DOI : 10.15709/hswr.2009.41.1.212
- [7] S. H. Kim & E. Y. Park. (2018). Influence of knowledge and attitude of cancer on cancer preven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general hospital nurses. *Asian Oncology Nursing*, 18(3), 163-172. DOI : 10.5388/aon.2018.18.3.163
- [8] I. J. Kim & S. H. Kim. (2012).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about cancer in university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12(1), 44-51. DOI : 10.5388/aon.2012.12.1.44
- [9] J. S. Moon. (1997).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beliefs and health Locus of control in young adul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15, 25-46. DOI : 10.31148/kjnmr.9971.15.3.25
- [10] Y. I. Kim. (2009). Workers' health belief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related factors. *Journal of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4), 465-473. DOI : 10.12799/jkachn.2009.20.4.99
- [11] J. Y. Kwok, S. Y. Kijm, J. Y. Kim, H. Y. Lee & J. Y. Lee(2016). Perception and practice of national cancer prevention actions in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Ewa Nursing*, 50, 99-113. DOI : 10.29402/HN50.
- [12] K. S. Kim. (2021). Self-rated health, depression and anxiety in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1(1), 212-233. DOI : 10.15709/hswr.2021.41.1.212
- [13] Y. O. Lim, Y. J. Kim, H. S. Yoon, D. Y. Jang & D. R. Choi. (2018). The study on developing the self care tool for the elderly cancer patient undergoing chemotherapy.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5(2), 73-88 DOI : 10.14367/kjhep.2018.35.2.1
- [14] I. S. So & H. S. Jeong (2017). Predictive factors th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breast cancer patients using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3), 258-269. DOI : 10.5762/KAIS.2017.18.3.258
- [15] Y. S. Lee. (2015).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 of health behavior among Korean low-income breast cancer surviv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5), 3188-3198. DOI : 10.5762/KAIS.2015.16.5.3188

- [16] K. Y. Shin. (2021). Influence of marital communication on cancer cop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subjective happiness in elderly cancer patients, *The Journal of the elderly nursing*, 23(4), 333-341.
DOI : 10.1111/opn.12443
- [17] I. Y. Kim, G. J. Yeom & S. H. Shin. (2014). Factors affecting on cancer prevention behaviors in adult women. *The Journal of Korean Adult Nursing*, 26(4), 155-465.
DOI : 10.7475/kjan.2014.26.4.455
- [19] K. C. Jeong & F. H. Joo. (2019). Influence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on subjective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10(8), 227-235.
DOI : 10.15207/KCS.2019.8.227
- [20] Y K. Yang. (2015).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health behaviors for cancer in undergraduat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1), 59-68.
DOI : 10.7739/jkafn.2015.22.1.59

김 윤 정(Yun-Jeong Kim)

[정회원]



- 2002년 7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응급처치, 건강증진
- E-Mail : yunkim@pcu.ac.kr